

또래 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A Cross-Sectional and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Bullying/Victimiza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Characteristics : The Participant Roles Approach*

심희옥(Hee-og Sim)¹⁾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articipant roles and th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bullying/victimization. The subjects were 4th and 5th grade children and instruments were the Participant Roles Scale, Self-Report Coping Scal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and Social Anxiety/Avoidance. They were contacted again one year later. In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nt roles at Time 1, defender of the victim was highest, then outsider; at Time 2 outsider was the highest and then defender. There was a tendency of gender difference in distribution of participant roles only at Time 1. Males were more in the group of reinforcer; females were more in the group of defender and victim. There were high positive correlations among bully/reinforcer/assistant scores. In the concurrent view, children who used approach coping strategies and showed higher social skills were more likely to be defender. Children who had lower social skills and higher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 In the longitudinal view, children who had developed higher social skills were more likely to be defender. Children who had employed less approach coping strategies and had showed lower social skills and higher social avoidance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

Key Words : 또래 괴롭힘(bullying), 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s),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사회적 불안/회피(social anxiety/avoidanc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C00425).

¹⁾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ee-og Sim, Division of Human Ecology, Child & Family Studies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73-701, Korea Email : simh@kunsan.ac.kr

I. 서론

핀란드의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을 시작으로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이분한 시각에서 집단역동의 전체과정으로 또래 괴롭힘에서 여러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Sutton & Smith, 1999). 양분한 시각은 사회집단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도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래 괴롭힘 가해는 어느 일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어떤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부추길 수 있고 어떤 아동은 피해자를 방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어 아동이 속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집단의 역동을 고려해 또래관계를 이해하려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participant roles)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래 괴롭힘이 벌어지는 상황에 또래 중 85%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며(Pepler & Craig, 1995)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동은 가해자에게 부정적이거나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Boulton & Underwood, 1992; Menesini 외, 1997; Whitney와 Smith, 1993). 비행소년이나 공격적인 남아는 공격이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데 옆에서 자신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아동이 있을 때 또래 괴롭힘 가해자는 더욱 으쓱해져 가해 역할에 전념할 수 있다(Slaby & Guerra, 1988). 또한 아동이 또래 괴롭힘 가해상황을 모르는 척하는 것조차도 가해자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Menesini 외, 1997). 이런 참여자의 역할이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연구와 중재문제에 떠오르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집단의 역동을 고려하여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과 Sutton과 Smith(1999)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 참여하는

역할을 참여자의 행동에 따라 가해자(bully), 가해 강화자(reinforcer), 가해 조력자(assistant), 피해 방어자(defender), 방관자(outsider), 피해자(victim) 등 6가지로 구분하고 분명한 역할이 없는 집단도 상정하였다. 또한 Olthof와 Goossens (2003)는 이런 분류가 또래 괴롭힘의 사회적인 생태(social ecology)를 알 수 있게 해주어 또래 괴롭힘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류하는 개인 중심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래 괴롭힘 가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자(initiator), 가해를 도와주는 추종자(follower), 방관자(outsider), 방어자(defender), 피해자(victims), 또래 괴롭힘 상황에 항상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spectator) 그리고 비관여자(uninvolved) 7가지로 참여자 역할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은 12, 13세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참여자 역할에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는데 남아가 가해자, 강화자 그리고 조력자 역할이 많고 여아는 방어자와 방관자가 많았다고 한다. Sutton과 Smith(1999)는 7-10세 아동의 경우 참여자의 역할 분포는 가해자가 11.9%, 강화자가 6.7%, 조력자가 6.2%, 방어자가 26.4%, 방관자가 9.8%, 피해자는 18.1%, 역할무는 20.7%였고, 역할에 성차를 보고하는데 남아가 또래 괴롭힘 강화자, 방관자, 피해자에서 여아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역할무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또한 참여자 역할간의 관계에서 가해자, 강화자와 조력자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이를 친가해(pro-bullying)라고 칭하기도 하였고, 강화자와 조력자가 방어자 역할과도 유의한 관련을 보이고, 방어자와 방관자 역할은 피해자와 유의한 관련을 보여 바람직한 역할과 그렇지 않은 역할간의 관련을 보고한다.

국내외적으로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아동의 부적절한 또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관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횡단연구와 더불어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종단연구는 횡단연구가 줄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동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영향의 증대나 감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또래 괴롭힘에 관한 또다른 이슈인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이 우리나라 아동에게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횡단과 더불어 종단적으로 아동의 참여자 역할간의 관계를 살펴보아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의 안정성이나 변화 정도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Tani와 그의 동료들(2002)은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참여자 역할을 4가지로(피해자의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가해를 부추기는 자) 분류하여, 가해를 부추기는 자와 피해자는 정서적 불안정이 높고, 우정/친밀의 수준은 낮았으며, 또래 괴롭힘 피해자는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했고, 방어자는 우정/친밀의 수준이 높고, 방관자는 내향적이고 독립적이었다고 보고한다. Olthof와 Goossens(2003)의 10-13세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시작자와 추종자는 다른 시작자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방어자는 다른 방어자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며, 추종자는 또래 괴롭힘 참여에 대한 또래 압력에 쉽게 굴복하고, 추종자와 시작자는 자신들의 또래 괴롭힘 가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다른 아동에게서 받는다고 한다.

이렇듯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이들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간 행동특성으로 친구와 갈등에서의 대처전략, 사회적 기술, 사회적 불안/회피를 상징해 이들 대인간 행동특성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과의 관계를 횡단과 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갈등 대처양식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을 탐색한 연구들에 의하면, 인기 있고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은 가상의 문제 상황을 효율적이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심희옥, 2001; Erwin, 1993; Sim, 2000). Bijttebier와 Vertommen(1998)은 4-6학년생 대상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대처전략 중 내면화와 관련이 있고, 또래 괴롭힘 가해는 외면화 및 문제 해결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Bernstein(1999)은 공격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9-13세 아동의 성격 특징과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공격자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수줍어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 또래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치기준이 달라 문제해결 양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Karp와 그의 동료들(1999)은 1-6학년생 연구에서 적극적인 대처전략이 또래 괴롭힘 피해자에게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Hyun(1999)은 10, 12, 14세 연구에서 방어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이 행동문제를 더 보고하고 빈약한 사회적응을 보인다고 한다. 4, 5학년 대상의 종단연구에서 Ladd와 Skinner(2000)는 대처전략 중 문제해결 전략은 또래 괴롭힘 피해를 감소시키고, 외면화 전략은 4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또래 괴롭힘 피해를 증가시켰다고 한다. Bowker와 그의 동료들(2000)은 7학년 대상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연구에서 공격적이고 인기가 없는 학생이 부정적인 전략(타인의 소문

퍼뜨리기)을 더 사용하고, 인기 있고 공격적인 여학생은 문제 중심적인 전략을 더 사용한다고 한다. 위축된 학생이 문제 중심적인 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반면에 정서 중심적인 전략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심희옥(2001)은 초등학교 4, 6학년 대상의 횡, 종단연구에서 대처양식 중 문제와 거리두기, 내면화, 외면화 같은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동시기에 또래를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원 찾기와 문제해결로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아동은 동시기에 또래 괴롭힘 가해에 덜 연루된다고 보고한다. 또한 문제와 거리두기, 내면화, 외면화 같은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사회적 지원 찾기와 문제해결로 또래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아동일수록 또래로부터 피해를 덜 입는다고 한다. 종단적 관점에서는 2년 전에 외면화로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했던 아동일수록 또래를 가해하는 아동이 될 수 있고, 친구와의 갈등을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했던 아동은 또래를 괴롭히는데 적게 연루되고 또한 내면화나 외면화로 또래와의 갈등에 대처했던 아동일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당한다고 보고한다.

이들 선행연구를 볼 때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자는 문제해결 양식이 서로 다르고 아동이 사용하는 어떤 대처양식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를 조장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듯하다. 이처럼 또래와의 말다툼이나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정도에 따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겠다.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위해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해서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사회정서면에서 부적응적이고 학업 성취도는 낮다고 한다 (Parker & Asher, 1987). 또한 Asher와 Coie (1990)는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듯이 적절한 친구나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요구될 수 있다. 즉 또래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하고 다양한 행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Menesini(1999)는 8-11세 아동의 관찰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행동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래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자는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을 규제하고,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순종적이고 상대방의 요구에 더 따르고 자주 설명을 요구한다고 한다. 심희옥(2002)은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1년 후 5학년 때와 2년 후 6학년생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하고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회적 기술의 장단기적인 영향인데 2년의 시간 경과에도 사회적 기술이 낮은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더 연루됨을 보고한다. 또래관계가 원만한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정도가 다르듯이 사회적 기술 발달정도에 따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이 사회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적응적인 감정에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이 있다. Spielberg(1966)는 불안에 관한 개념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 이해하여 불안감에 쌓인 아동은 건전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동료간에 따돌림을 받거나 고립되기 쉽다고 한다(김종대, 1984, 재인용). 이렇듯 불안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서적 요소가 되며 아동은 만족하지 못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감을 보이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동은 도피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김승희, 1991). 또한 Franke와 Hymel(1984)은 사회적 회피(social avoidance)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며 또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회피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된 표현 행동으로 부적절한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불안과 회피정도에 따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이 다를 것인가?

본 연구에서 친구와 갈등에서의 대처전략,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불안/회피와 같은 아동의 대인간 행동특성과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과의 관련을 탐색함으로써 또래 괴롭힘 가해자나 가해를 강화하거나 가해를 도와주는 아동은 물론 또래 괴롭힘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방어하려는 아동의 대인간 행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해 준다. 특히 종단적인 관점은 어느 대인간 행동 특성이 지속적으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게 해 준다. 이런 결과는 아동이 또래 괴롭힘을 부추기거나 방관적이기 보다는 또래 괴롭힘 피해자를 방어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대인간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주어 아동이 또래 괴롭힘에 가능한 동조하지 않고 또래 괴롭힘 피해자를 돌보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 분포는 시기별로 어떠한가? 역할 분포에 남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횡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 4>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후기 아동의 경우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고(Berndt, 1979)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예민하므로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때 아동은 상당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은 Time 1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생 500명으로 남아는 273명(54.6%), 여아는 227명(45.4%)이고, 나이의 범위는 9-11세이며, 평균 연령은 10.38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5.4%, 대학교 졸업은 47.2%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33%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50.5%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6%이고, 대학교 졸업은 34.4%였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21.1%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12.3%였다. Time 2는 1년 후 이들이 5, 6학년 때로 연구 대상자는 10%정도의 탈락률을 보여 452명으로 남아는 244(54%), 여아는 208명(46%)였다.

2. 조사도구

1) 참여자 역할

Sutton과 Smith(1999)가 사용한 Participant Roles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해자가 4문항, 강화자가 5문항, 조력자가 2문항, 방어가자가 5문항, 방관자 4문항, 피해자가 1문항으로 총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개개의 문항에 대해 반친구 중 문항의 행동을 하는 동성 친구를

“때때로 그렇다(1점)”나 “자주 그렇다(2점)”에 쓰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Sutton과 Smith(1999)의 제안대로 아동의 응답에 대한 수고를 덜어주고, 연구대상 연령의 아동은 주로 동성의 친구와 어울리기 때문에 동성의 반친구를 지명하게 했다. Sutton과 Smith(1999)는 참여자 역할 분류에서 4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방법중 각반별 표준화와 표준화시키지 않는 방법의 중간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점수의 영향을 줄이는 연구대상 전체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해자 역할은 가해자 점수의 평균보다 높거나 어떤 다른 역할보다 가해자 역할에서 점수가 높을 때 이 역할을 부여한다. 모든 역할의 평균보다 낮거나 표준화 된 두개의 높은 점수간의 차이가 .1보다 낮으면 역할이 없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역할의 점수와 상관없이 반 아동의 30% 이상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으로 상정하였다. Time 1에서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의 Cronbach 신뢰도 계수 Alpha는 순서대로 .91, .83, .73, .81, .72이고, Time 2에서는 .90, .79, .50, .74, .51이었다.

2) 대처전략

Causey와 Dubow(1992)가 만든 Self-Report Coping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인, “친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웠을 때”에 아동은 어떤 대처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척도는 이런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5가지의 전략을 측정하는데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구성은 문제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전략 7문항,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 7문항 그리고 문제를 외적으로 풀려고 하는 전략 4문항으로 이는 회피적 대처전략이라고도 부른

다. 사회적 지원을 찾는 전략 8문항과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 8문항은 접근식 대처전략이라고도 부른다. 회피적 대처전략 문항의 예는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 한다”이고, 접근식 대처전략 문항의 예는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행동에 옮긴다”이다. 응답은 “결코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Time 1의 회피적 대처전략의 Cronbach 신뢰도 계수 Alpha는 .77, 접근식 대처전략은 .84이고, Time 2에서는 .80과 .85이었다.

3) 사회적 기술

Inderbitzen과 Foster(1992)가 만든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반은 긍정, 반은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의 초등학생에게 부과하기에는 문항수가 너무 많아 초등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13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상황 문항의 예는 “친구가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준다”이고, 부정적인 상황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애들이 실수를 하면 비웃는다”이다.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정말로 아니다”에서 “정말로 그렇다”의 6점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Time 1의 Cronbach 신뢰도 계수 Alpha는 .74이고, Time 2에서는 .77이었다.

4) 사회적 불안/회피

사회적 불안/회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Franke와 Hymel(1984)의 사회적 불안 6문항, 사회적 회피 6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

하였다. 사회적 불안 문항의 예는 “내가 뭔가 하는 것을 다른 애들이 볼 때 긴장이 된다”이다. 사회적 회피 문항의 예는 “나는 혼자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과 회피가 높음을 의미한다. Time 1의 Cronbach 신뢰도 계수 Alpha는 사회적 불안이 .73이고, 사회적 회피는 .79이며, Time 2에서는 .72과 .86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아동은 중소도시인 K시내에서 학교의 소재를 생각할 때 상중하의 경제적인 여건이 고루 섞인 한 개 초등학교 재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변인과정에서 적합한 언어 선택과 아동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연구의 해당 연령 아동과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완성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반별로 실시되었고 응답 후 바로 수거되었다. 자료수집 시기는 Time 1과 Time 2 모두 학생들이 한 학년의 1학기과 2학기를 보낸 12월이었다.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했고,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에 따른 남녀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했으며,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했고, 대인간 행동특성과 참여자 역할과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 분포는 시기별로 어떠한가? 역할 분포에 남녀 차이가 있는가?

Time 1과 Time 2에서 또래 괴롭힘 상황의 참여자 역할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분명한 역할이 없는 30% 정도의 아동을 제외하면, Time 1에서는 방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관자, 조력자, 강화자, 가해자, 피해자 순이었다. Time 2에서는 방관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어자,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피해자 순이었다. 1년 사이에 가해자와 방관자는 증가했고, 피해자와 역할무 집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 분포의 남녀차이는 Time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에 의하면, 남자는 가해자, 강화자, 방관자, 역할무가 여아보다 많고, 방어자와 피해자는 여아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의 시기별 빈도분포

() : %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역할무	계
Time 1 (4, 5학년)	44 (8.8)	50 (10.0)	58 (11.6)	93 (18.6)	77 (15.4)	30 (6.0)	148 (29.6)	500 (100)
Time 2 (5, 6학년)	53 (11.7)	48 (10.6)	48 (10.6)	85 (18.8)	105 (23.2)	19 (4.2)	94 (20.8)	452 (100)

〈표 2〉 Time 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에 따른 남녀차이 () : %

	남 아	여 아	계
가해자	23(52.27)	21(47.73)	44(8.80)
강화자	35(70.0)	15(30.0)	50(10.00)
조력자	29(50.0)	29(50.0)	58(11.60)
방어자	43(46.24)	50(53.76)	93(18.60)
방관자	40(51.95)	37(48.05)	77(15.40)
피해자	14(46.67)	16(53.33)	30(6.00)
역할무	89(60.14)	59(39.86)	148(29.60)
계	273(54.60)	227(45.40)	500(100)

$\chi^2(6)=10.81$
 $p<.10$

2.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간에 상당히 유의한 관련을 보이고 있고, Time 1에서 가해자일

수록 방관적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강화자나 방관자가 더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Time 2에서 가해자가 덜 방어적이고, 강화자가 방관적이며, 방관자가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역할은 Time 1 과 Time 2에서 안정적이어서 가해자는 1년 후에도 가해자이기 쉽고, 강화자는 강화자, 조력자는 조력자, 방어자는 방어자, 방관자는 방관자,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Time 1에서 방어자와 Time 2의 조력자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횡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아동의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횡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가해자는 사회적 불안이 적

〈표 3〉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간의 횡, 종단적인 상관관계 (N=452)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T1 가해자	-											
2. T1 강화자	.76****	-										
3. T1 조력자	.66****	.69****	-									
4. T1 방어자	.09*	.12**	.28****	-								
5. T1 방관자	.10*	.27****	.18****	.12**	-							
6. T1 피해자	.02	.12**	.04	.03	.30****	-						
7. T2 가해자	.36****	.33****	.23****	.02	-.05	-.04	-					
8. T2 강화자	.23****	.26****	.15***	.01	.02	.03	.73****	-				
9. T2 조력자	.30****	.26****	.21****	.16***	-.06	-.02	.61****	.61****	-			
10. T2 방어자	-.01	-.04	.02	.20****	-.01	-.02	-.10*	-.05	.20****	-		
11. T2 방관자	-.02	.03	-.04	-.06	.09*	.09*	-.06	.16****	-.07	-.00	-	
12. T2 피해자	-.05	.00	-.04	-.06	.07	.45****	-.06	-.01	-.08*	.01	.20****	-

* $p<.10$ ** $p<.05$ *** $p<.01$ **** $p<.001$ ***** $p<.0001$

〈표 4〉 대인간 행동특성과 또래 괴롭힘 참여자간의 횡단적인 상관관계 (N=495)

		Time 1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Time 1	접근식 대처전략	-.06	-.04	-.02	.20****	-.00	-.02
	회피식 대처전략	-.06	-.00	-.06	-.01	.06	.07
	사회적 기술	-.01	-.02	.01	.17****	-.02	-.09*
	사회적 불안	-.07*	-.02	-.02	.13***	.13***	.09*
	사회적 회피	-.06	-.02	-.05	-.07*	.10*	.11*

* $p < .10$ * $p < .05$ *** $p < .001$ **** $p < .0001$

은 경향을 보이고, 방어자는 접근식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불안이 높으며, 사회적 회피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관자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사회적 기술이 낮고,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집단과 횡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대인간 행동특성과 참여자 역할과의 분명한 관련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인간 행동특성이 거의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어 대인간 행동특성은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만 구분하였다.

대인간 행동특성 중 접근식 대처전략<표 5>, 사회적 기술<표 6>, 그리고 사회적 회피<표 7>는 참여자의 역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사회적 불안 <표 8>에서는 유의한 경향

〈표 5〉 Time 1의 접근식 대처전략과 Time 1의 참여자 역할과의 관계 () : %

		Time 1							역할무	계	
Time 1	접근식 대처전략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상		25 (10.20)	21 (8.57)	24 (9.80)	57 (23.27)	31 (12.65)	18 (7.35)	69 (28.16)	245 (49.00)	$\chi^2(6)$ =13.17	
하		19 (7.45)	29 (11.37)	34 (13.33)	36 (14.12)	46 (18.04)	12 (4.71)	79 (30.98)	255 (51.00)	$p < .05$	
계		44 (8.80)	50 (10.0)	58 (11.60)	93 (18.60)	77 (15.40)	30 (6.00)	148 (29.60)	500 (100)		

〈표 6〉 Time 1의 사회적 기술과 Time 1의 참여자 역할과의 관계 () : %

		Time 1							역할무	계	
Time 1	사회적 기술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상		29 (11.69)	26 (10.48)	23 (9.27)	56 (22.58)	33 (13.31)	11 (4.44)	70 (28.23)	248 (49.60)	$\chi^2(6)$ =15.01	
하		15 (5.95)	24 (9.52)	35 (13.89)	37 (14.68)	44 (17.46)	19 (7.54)	78 (30.95)	252 (50.40)	$p < .05$	
계		44 (8.80)	50 (10.00)	58 (11.60)	93 (18.60)	77 (15.40)	30 (6.00)	148 (29.60)	500 (100)		

<표 7> Time 1의 사회적 회피와 Time 1의 참여자 역할과의 관계 () : %

Time 1	Time 1								계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역할무	계		
사회적 회피										
상	14 (5.62)	24 (9.64)	23 (9.24)	41 (16.47)	45 (18.07)	19 (7.63)	83 (33.33)	249 (49.80)	$\chi^2(6)$ =16.19	$p < .01$
하	30 (11.95)	26 (10.36)	35 (13.94)	52 (20.72)	32 (12.75)	11 (4.38)	65 (25.90)	251 (50.20)		
계	44 (8.80)	50 (10.00)	58 (11.60)	93 (18.60)	77 (15.40)	30 (6.00)	148 (29.60)	500 (100)		

을 보이고 있다.

<표 5>에 의하면,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역할 무 집단을 제외하고, 접근식 대처전략이 높은 아동은 방어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접근식 대처전략이 낮은 아동은 방관자 집단에 가장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역할 무 집단을 제외하고, 사회적 기술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방어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사회적 기술이 낮은 집단의 아동은 방관자 집단에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의하면,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역할 무 집단을 제외하고, 사회적 회피가 높은 집단은 방관자 역할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사회적 회피

가 낮은 아동은 방어자 역할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역할 무 집단을 제외하고, 사회적 불안이 높은 아동이 방관자 역할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은 방어자 집단이고, 사회적 불안이 낮은 집단은 방어자에 가장 많이 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4.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아동의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해 본 결

<표 8> Time 1의 사회적 불안과 Time 1의 참여자 역할과의 관계 () : %

Time 1	Time 1								계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역할무	계		
사회적 불안										
상	12 (5.38)	20 (8.97)	25 (11.21)	41 (18.39)	42 (18.83)	18 (8.07)	65 (29.15)	223 (44.60)	$\chi^2(6)$ =11.83	$p < .10$
하	32 (11.55)	30 (10.83)	33 (11.91)	52 (18.77)	35 (12.64)	12 (4.33)	83 (29.96)	277 (55.40)		
계	44 (8.80)	50 (10.00)	58 (11.60)	93 (18.60)	77 (15.40)	30 (6.00)	148 (29.60)	500 (100)		

과는 <표 9>와 같다.

<표 9> Time 1 대인간 행동특성과 Time 2 또래 괴롭힘 참여자 간의 종단적인 상관관계 (N=451)

Time 1	Time 2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접근식 대처전략	-.04	-.06	.05	.09*	-.04	-.09*
회피식 대처전략	-.03	-.00	-.01	.03	.03	-.01
사회적 기술	.01	-.05	.04	.14***	-.07	-.13**
사회적 불안	-.02	.02	.07	.05	.03	.02
사회적 회피	-.06	.02	-.08*	-.03	.03	.14***

*p<.10 *p<.05 **p<.01 ***p<.001

<표 9>에 의하면, 사회적 회피가 낮았던 아동이 조력자와 관련이 있는 경향이 있고, 접근식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했던 아동이 방어자와 관련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이 방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식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이 피해자가 덜 되며, 사회적 회피가 높았던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집단과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대인간 행동특성과 참여자 역할과의 분명한 관련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인간 행동특성이 거의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어 대인간 행동특성은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만 구분하였다.

대인간 행동특성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의 종단적인 관련은 사회적 기술 <표 10>에서만 유의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0>에 의하면,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역할 무 집단을 제외하고, 사회적 기술이 높은 아동이 1년 후에 방어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기술이 낮은 아동은 1년 후에 방관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아동의 역할을 가해자나 피해자로만 구분하는 지금까지의 개인 중심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집단의 역동을 알게 해 줄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다양한 역할을 횡단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대인간 행동특성에 따른 참여자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즉 대처전략, 사회적 기술, 사회적 회피/

<표 10> Time 1의 사회적 기술과 Time 2의 참여자 역할과의 관계 () : %

Time 1	Time 2							역할무	계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사회적 기술										
상	33 (14.54)	23 (10.13)	23 (10.13)	47 (20.70)	41 (18.06)	7 (3.08)	53 (23.35)	227 (50.22)	$\chi^2(6)$ =12.19	p<.10
하	20 (8.89)	25 (11.11)	25 (11.11)	38 (16.89)	64 (28.44)	12 (5.33)	41 (18.22)	225 (49.78)		
계	53 (11.73)	48 (10.62)	48 (10.62)	85 (18.81)	105 (23.23)	19 (4.20)	94 (20.80)	452 (100)		

불안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아동의 여러 가지 다른 역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횡단과 종단적으로 밝혀 바람직한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 분포는 시기별로 어떠한가? 역할 분포에 남녀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역할이 없는 아동을 제외하면, Time 1(4, 5학년)에서는 방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관자, 조력자, 강화자, 가해자, 피해자 순이었고, Time 2(5, 6학년)에서는 방관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어자,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피해자 순이었다. 이는 Sutton과 Smith(1999)의 참여자 역할 분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영국의 7-10세 아동은 방어자가 2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역할무 집단이고, 피해자는 18.1%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아동보다 가해자는 적으나 강화자와 조력자는 많다. 그리고 여기서 피해자는 다른 역할의 점수와 상관없이 반 아동의 30% 이상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인데 우리나라 아동은 영국아동보다 피해자가 월등하게 적은 것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가해자와 방관자는 1년 사이에 증가했고, 피해자와 역할무 집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 6학년이 되면서 가해자와 방관자가 많아지는데 특히 방관자가 많아지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또래 괴롭힘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아동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려할 현상이다. 이는 6학년과 8학년을 비교한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8)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 분포의

남녀차이는 Time 1, 4, 5학년에서만 유의한 경향이 있었다. 남아는 가해자, 강화자, 방관자, 역할무가 여아보다 많고, 방어자와 피해자는 여아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2에서 남녀 차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성과 관련된 독특한 역할보다 남녀 모두 고르게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은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는 남아가 많고, 방어자와 방관자는 여아가 많았다고 보고하며, Sutton과 Smith(1999)는 강화자, 방관자, 피해자가 남아가 많음을 보고한다. 이런 결과는 분류방법과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참여자 역할에 남녀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시간대와 상관없이 가해자, 강화자 그리고 조력자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때문에 Sutton과 Smith(1999)는 이 3가지 역할을 친가해(pro-bullying)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Time 1에서는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일수록 방관적이기 쉬워 보이고 또한 강화자나 방관자가 더 피해자이기 쉬워 보였다. 이는 Sutton과 Smith(1999)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Time 2에서는 가해자가 방어자 역할에 덜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강화자가 방관적이며, 방관자는 피해자이기 쉬운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자의 역할은 안정적이어서 가해자는 1년 후에도 가해자이기 쉽고, 강화자는 강화자, 조력자는 조력자, 방어자는 방어자, 방관자는 방관자,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기 쉬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Time 1에서 강화자와 조력자가 방

어자와 관련이 있고, Time 1의 방어자가 Time 2의 조력자와 관련이 있으며, Time 2에서 조력자가 방어자와 관련이 있는 결과들은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이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아동이 어떤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또래망(peer networks)이나 집단 규준(group norm)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기대가 따라 행동을 달리하기 때문일 수 있겠다(Salmivalli, Huttunen, & Lagerspetz, 1997; Salmivalli, 1999; Salmivalli & Voeten, 2004). 이런 결과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개입 프로그램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반 전체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해자는 타인의 지지나 칭찬이 없으면 가해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방관자, 조력자, 강화자의 행동이 가해자보다 바뀌기가 쉬울 것으로 제안됨을 상기해야겠다(Salmivalli, 1999), 긍정적인 역할자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확고하게 긍정적인 태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하겠다.

3.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횡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상관분석에 의하면, 또래와의 갈등에서 접근식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 기술이 높은 아동일수록 방어자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결과로 친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웠을 때 사회적 지원을 찾거나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아동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약자 편을 들거나 약자를 위로하고 또래 괴롭힘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아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술도 높아 또래와의 관계도 원만한 아동이 또래 괴롭힘 피해아동을 위해 방어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듯 하다. 즉 방어자는 또래관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Salmivalli 등, 1996), 이런 높은 사회적 지위는 설령 피해자를 도와주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동들의 지탄을 염려할 필요를 없게 해 방어자는 자유롭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회적 불안이 높은 아동이 방어자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좀더 많은 연구결과가 쌓여야 하겠으나 여기서 사회적 불안이란 낯선 사람에 대한 긴장감이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염려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 방어자는 어느 정도 이런 긴장감과 염려가 있어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 편을 들고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내는지도 모르겠다.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가 높은 아동일수록 방관자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는 낯선이에 대한 지나친 긴장감, 타인의 이목에 대한 염려로 사회적인 상황에 관여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소극적인 아동이 또래 괴롭힘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모르는 척하거나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결국 조용히 가해자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기술이 낮고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가 높은 아동일수록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연구(심희옥, 2002; Asher & Coie, 1990; Hawker & Boulton, 2000; Tani 등, 2003)들이 보여오고 있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χ^2 검증 역시 상관분석과 비슷하게, 대인간 행동특성 중 먼저 접근식 대처전략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데

접근식 대처전략을 월등하게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방어자 역할에 더욱 참여하였다. 접근식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이 방관자 역할을 많이 한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또래 갈등에서 사회적 지원을 찾거나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동이 또래 괴롭힘을 받는 아동 편에서 이들을 방어하는데 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 높은 아동이 방어자 역할을 하고 사회적 기술이 낮은 아동은 방관자가 되기 쉬워 보인다. Tani와 그이 동료의 제안처럼(2003), 방관자는 또래들과 사회적으로 잘 관여하지 못하고 곤궁에 처한 아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곤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즉 방관자는 내성적이며 사회적 기술이 낮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사회적 회피가 높은 아동은 방관자 역할을 많이 하고 사회적 회피가 낮은 아동은 방어자 역할에 많이 참여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아동은 또래와 함께 하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으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보다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불안이 높은 아동은 방관자 역할에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은 방어자이다. 상관분석처럼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불안감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인 피해자에 대한 방어자 역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요약하면, 긍정적인 대인관계 특성의 소유자가 방어자 역할을 하며 부정적인 대인간 행동특성의 소유자는 방관자가 되기 쉬워 보인다. 즉 방어자와 대조적으로 방관자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 있으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본척하기도 하고 누

구의 편에도 서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대인간 행동특성을 많이 지닌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이런 방관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대인간 행동특성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상관분석에 의하면, 접근식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했던 아동이 1년 후 방어자와 관련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이 1년 후 방어자 역할을 더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접근식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이 1년 후 피해자가 덜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사회적 회피가 높았던 아동이 피해자가 더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심희옥(2002)의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1년 후 5학년 때와 2년 후 6학년생 연구에서 2년의 시간 경과에도 사회적 기술이 낮은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더 연루된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피해자는 사회적인 기술부족으로 또래 관계에 관여하기 보다는 회피적인 행동을 해 또래 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한다.

χ^2 검증 역시 상관분석과 비슷하게, 대인간 행동특성중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집단의 아동이 1년 후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자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사회적 기술이 높은 아동이 대인간 갈등상황에서 여유롭게 약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적 기술이 낮았던 아동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역할은 방관자 역할인데 방관자는 사회적 기술이 낮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본척하기도 하

고 누구의 편에도 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ni 등, 2003).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대인간 행동특성은 사회적 기술로 보여진다. 피해자는 여러 가지 취약한 대인간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런 특성 때문에 아동은 장기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일부 학생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또래간에 일어나는 모호한 상황에서 성인들은 감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또래 보고에 교사나 관찰자의 평가가 추가된다면 보다 정확한 아동의 또래관계 측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개인 중심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집단의 역동을 알게 해 줄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다양한 역할을 횡단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고 또한 대인간 행동특성 즉, 대처전략, 사회적 기술, 사회적 회피/불안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아동의 여러 가지 다른 역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횡단과 종단적으로 밝혀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동을 돕기 위한 중재 및 수정 프로그램 제작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

참 고 문 헌

- 김승희(1991). 체계적 감감법을 적용한 국민학교 아동의 대인불안 감소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대(1984). *정신위생학*. 서울 : 형설출판사.
- 심희옥(2001).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 피해 ·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2(3), 49-61.
-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 피해 ·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 Asher, S. R., & Coie, J. D.(1990). *Peer rejection in childre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 Bernstein, J.(1999, April). *Problem-solving styles of aggressive and victimized children : The aggressor/victim system*.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Bijttebier, P., & Vertommen, H.(1998). Coping with peer arguments in school-age children with bully/victim problem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8, 387-394.
-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owker, A., Bukowski, W. M., Hymel, S., & Sippola, L. K.(2000). Coping with daily hassles in the peer group during early adolescence : Variations as a function of peer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2), 211-243.
- Causey, D. L., & Dubow, E. F.(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1), 47-59.
- Erwin, P.(1993).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children*. West Sussex : John Wiley & Sons.
- Franke, S., & Hymel, S.(1984, May). *Social anxiety in children : The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 the University of Waterloo Conference on Child Development, Waterloo, Ontario.
- Hawker, D. S., & Boulton, M. J.(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1*(4), 441-455.
- Hyun, O.(1999, April). *Effects of stress coping behaviors on social adjustment in childhood*.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Inderbitzen, H. M., & Foster, S. L.(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51-459.
- Karp, J. A., Mahady-Wilton, M., & Craig, W. M. (1999). *A comparison of the coping behaviors of victims of bullying on the playground and in the classroom*.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Ladd, B. K., & Skinner, K.(2000, March).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J. Juvonen(Chair), *Harassment across diverse contexts*. Poster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Adolescence, Chicago, IL.
- Menesini, E., Eslea, M., Smith, P. K., Genta, M. L., Giannetti, E., Fonzi, A., & Costabile, A.(1997). Cross-national comparison of children's attitudes towards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Aggressive Behavior, 23*, 245-257.
- Olthof, T., & Goossens, F. A.(2003, April). *Emotional and motivational Correlates of playing a particular role in bullying*. Paper presented in the symposium Bullying in 5 continents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lorida.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epler, D. J., Craig, W. M.(1995). A peek behind the fence :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aggressive children with remote audiovisual recor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1*, 548-553.
- Salmivalli, C.(1999).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 453-459.
- Salmivalli, C., Huttunen, A., & Lagerspetz, K. M., J. (1997). Peer networks and bullying in schoo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 305-312.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 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5*, 97-111.
- Salmivalli, C., Lappalainen, M., & Lagerspetz, K. M. J.(1998). Stability and change of behavior in connection with bullying in schools : A two-year follow-up. *Aggressive Behavior, 24*, 205-218.
- Salmivalli, D., & Voeten, M.(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im, H.(2000).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and social support to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among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6), 647-659.
- Slaby, R. G., & Guerra, N.(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 Sutton, J., & Smith, P. K.(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5*, 97-111.
- Tani, F., Greenman, P. S., & Schneider, B. H.(2002).

Personality and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incident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ural Development, Ottawa, Canada.

Tani, F., Greenman, P., S., Schneider, B. H., & Fregoso, M.(2003). Bullying and the big five : A study of childhood personality and participant roles

inbullying incid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4(2), 131-146.

Whitney, I., & Smith, P. K.(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 3-25.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9월 1일 채택